

불자 세상보기



최용춘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갑오년이자 시작 되면서 모두 희망에 부풀어 있었으나,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서울2호선 지하철 추돌사고, 인천중앙병원화재, 합정역 지하철화재, 안산화학물질 제조공장 폭발사고, 대구사대부고화재,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시화공단 산업폐기물처리업체화재 등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5월28일 장성요양병원 사고등 하루에만 4곳의 화재소식을 쏟아냈다.

자기 의식부터 바뀌야 안전불감증 해소

완전히 끝났다.” 1912년 4월 빙산에 부딪혀 침몰한 타이타닉호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이 선객들을 대피시키고 선원들과 가라앉는 배에서 최후를 맞으면서 한 말이다. 타이타닉 침몰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지구에는 격동의 세월이 쌓였으나 이들은 온 지구인의 가슴속에 새록새록 영웅으로 남아있다.

책 보고만 있었다. 갑판 위로 물려나와 구조를 기다려야 할 애들은 보이지 않고 선장, 선원들만 재빠르게 구명정에 옮겨타는 장면은 역장을 무너뜨린다. 선내에서 움직이지 말고 제자리를 지키라는 방송에 가라앉는 선내에서 재난 대피자인 대피를 당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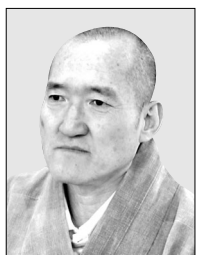
낸 선생님, 자기 조끼를 친구에게 주고 희생된 학생, 의인들의 선행은 절망 속에 우리 심금을 울린다. 이번 사고들로 각계각층에서 진단 처방이 나오고, 거국적 개조론이 일고 있다. 제대로 임무수행을 하지 못한 해경해체, 안전행정부 축소, 형법 개정, (가칭)유병연재발방지법 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 등 잘못된 제도는 바뀌어 되겠지만 그렇다고 “사회 병폐의 근본치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발언대

공직자 윤리 문제 어떻게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총리 지명 후 몇시간만에 사퇴했다. 정립하고 개혁적 성향의 인물로 기대를 모았으나 전관예우를 통한 축제가 문제가 됐다. 2000년 이후 5명의 총리 후보가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다른 고위 공직자들도 자신의 과거 업보로 청문회에서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직자 윤리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주>

부정 축재 거부가 진정한 보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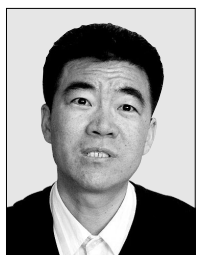


범용 스님 한진도평화통일 실천기회단장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 사퇴자를 포함하여, 지난 2000년 이후 도합 5명의 총리지명자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토지불법증여, 이중국적, 아들의 병역문제 등으로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재확인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30년 이상을 고위공직이나 학계에 종사했던 인물들이 총리 후보자로 낙점이 된다는 사실에서 이중의 가면 속에 살아있는 한국사회 지도층의 쓸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라는 수입료를 벌어들였다. 전관에 우리는 약습의 특혜를 누린 덕분이 분명하다. 총리의 대상이여야 하는 사회 지도층이 전관예우와 투기, 편법으로 돈벌이와 일민간의 안위를 추구하면서 한편으로 권력에의 탐욕을 거두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의 인격형성문화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전관예우로 관력에 영향을 받았다면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재판의 상대관계자요, 법과 사회의 질서다. 전관예우야말로 한국사회의 침몰을 조장하는 악습이다.

“돈이 우선인 사회, 확 뜯어 고쳐야”



정우식 전 대한불교청년회장

지금 사회는 돈이 최고인 사회다. 마찬가지로 공직사회에서도 공직윤리나 도덕성, 정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세태가 가장 극명히 드러난 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였다. 사람을 구하기 보다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보였다. 또 해운회사와 얽혀있는 여러 비위 사건이 터지며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

있어 개개인의 품성을 보는 것이다. 일개 사기업에서 인성을 강조 하듯 정부에서는 마땅히 책임윤리를 강조해야 한다. 그럼에도 공직자 윤리 기강 확립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공직을 돈으로 보지 않고, 소명의식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 사람의 눈치만 보는 행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보다 자신의 직위와 안위를 생각하는 행정을 확 뜯어 고쳐야 한다. 이 중 공직자 윤리기강을 확립하는 것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Advertisement for 'Gudan-gugongbeop' (구단구공법) featuring a photo of Jeong Heung-gyo and details about the course, including dates,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Keibleka' (케이블카) featuring a photo of a cable car and text about its safety and scenic view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able car company.

Advertisement for 'Hyundabulgyo' (현대불교) featuring a photo of a person and text about their activitie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rganization.